

## 국내 기업 금융불안에도 해외인재 유치나서

우리 기업들이 금융시장 불안 등 글로벌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글로벌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세스나그룹은 오는 7일 미국 뉴저지주 티벡 메리어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글로벌 코리안 취업박람회(Jobworld Career Expo 2008)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LA, 9월 상하이에서 잡월드 코리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는 세스나그룹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정밀유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북미본부 등이 참가한다. 미국기업으로는 프루덴셜, AT&T, HSBC, 뉴욕라이프 등이 참가해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한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코리안 취업박람회는 이중언어 한인 취업자에게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취업정보 장이, 참가기업들에게는 인재 확보와 동시에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자들은 세스나그룹의 전문컨설턴트들이 참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잡월드 USA 닷컴 온라인으로([www.jobworldusa.com](http://www.jobworldusa.com)) 미리 참가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취업희망 기업에 미리 이력서를 지원 할 수 있다. 온라인 인터뷰도 가능하다.

김성민 대표는 “참가신청자의 50%는 재미동포 1.5 세 2 세들이며, 석·박사 및 MBA 고급 인재들이 대거 참가 한다”면서 “한국뉴욕총영사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한미재단(KACFNY)등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